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경남중고동창회보

발행·편집인: 안경태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 FAX: 245-7550
인쇄처: (주)중앙인쇄
Tel: (051)636-9477 · FAX: 636-9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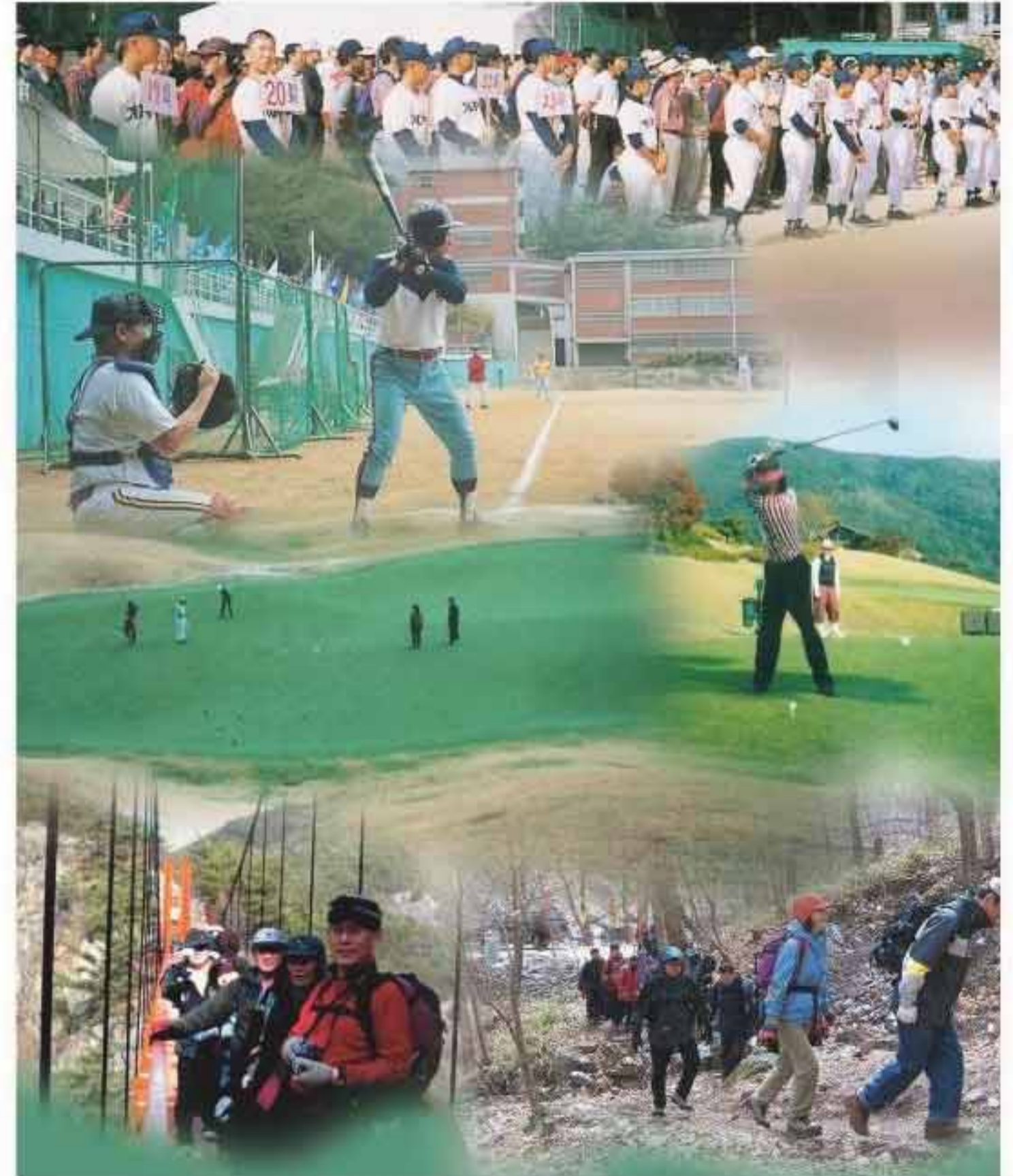
본부 빅2행사 기별야구·골프대회 10월 중 팡파르

야구 9일 개막
골프 17일 티샷
등산 11월27일

본부동창회 빅2행사인 기별대항야구·용마골프대회가 오는 10월 중 열리게 돼 벌써부터 각 동회마다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월7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에서 안경태 회장(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본부 회장단 회의는 △

제37회 기별대항야구대회와 △제8회 용마골프대회 계획을 승인했다. 기별대항야구대회를 위한 대표자회의는 9월22일 개최, 대진표를 확정한다.
기별야구대회는 10월9일 경남고 운동장에서 경야회 주관으로 개막한다. 이날 최다참가상 1·2·3위와 최다참가가족상 등을 수여

하고, 이어 연합 A·B팀 대전을 치른다. 연합팀은 제1~18회로 구성(A팀-홀수기·B팀-짝수기)한다. 이에 앞서 장타대회를 벌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 중식을 제공한다.
단일팀은 제19~48회로 구성하고, 예선전에서 청·장·중년부로 나눠 격돌한 후 8강전부터는 부별 관계없이 승자끼리 붙는다. 특히 이벤트행사로 동문·가족들이 참가하는 발야구와 릴레이도 펼칠 계획이다.
제8회 기별대항골프대회는 10월17일 부산 CC에서 열린다. 제1~48회가 벌이는 단체전을 비롯해 개인전 시니어부개인전 여성부 등으로 기량을 겨룬다. 이날 오전9시 아웃·인 두 코스에서 동시에 출발하며 오후 5시 시상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한편 본부 용마산악회는 오는 11월27일 제24차 정기등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준수 회장(15회)이 이끌 이 대회는 연말 종합우승팀을 선발하는 성적으로 기록된다.



본부 용마산악회 해외등반계획 확정

10월 27~30일 중국 황산 올라

본부 용마산악회 주관 해외등반(제23차 정기산행) 일정이 오는 10월 27~30일 중국 황산(1,860m)코스로 확정됐다.
용마산악회에 따르면, 최근 정준수 회장(15회)이 주재한 회장단 회의는 그간 연기되었던 해외등반계획안을 심의, 이 같이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
이번 3박4일 코스 중 △제1일은 부산에서 중국 항주로 들어가 중국 10대 명승지의 하나인 서호유람~영은사를 '관광'한 후

황산 들머리 호텔에서 머문다.
△제2일은 영화 '와호장룡'의 촬영지인 비취계곡~운곡사~백아령 케이블카 이용~72봉의 수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황산을 등정한다.
△제3일은 황산의 배운정 등 황산 절경과 거대한 인공 지하동굴인 화산미굴 등을 관광한 후 다시 항주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다.
△제4일은 항주의 13층 높이 옥화탑과 용정차농원 등을 관광



본부 용마산악회 회장단의 그간 미뤄왔던 중국 황산 등반계획을 심의, 오는 10월27~30일 실시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다. 이 행사는 제23차 정기산행 대회를 치러진다.

하고 곧바로 부산으로 돌아온다. 여행 공식 경비는 1인당 60만~70만 원(최종 금액 조정 중)이고 각 동회기별 명단 제출은 9월

27일까지이며, 신청 예약금은 1인당 10만원이다.
*연락처 : (051) 628-1296 · 011-858-7766
총무 서민식

제6회·김경희 재경고문(9회) 경남고 야구부 격려금 쾌척 이길상(6회) 교직원에 1년분 녹차

제6회동기회와 김경희(9회) 재경동창회 고문은 최근 전국대회에 출전한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각각 격려금을 쾌척했다. 격려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6회=30만원(6월3일 제59회 황금사자대회) △김경희 고문=10만원(4월 11일 야구100주년 우수고교대회). 한편 이길상 제6회 회장(경야회 고문)은 경남고 교직원들이 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하동녹차를 공급하고 있다.

GOLF

동창회장배쟁탈 제8회 용마골프대회



- 일 시 / 2005년 10월 17일(월)
오전 9시 첫 Tee Off (예정시간)
- 장 소 / 부산 C.C.
- 대회구분 / 1) 기별대항 단체전 (스트로크 방식)
2) 개인전 (뉴페리어 방식)
3) 시니어부 개인전 (1회~12회)
4) 용마가족 여성부 개인전 (동문 부인)
- 참가신청 / 본부동창회 사무국 (051-245-7551~3)

주최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시평

정 방 호

제29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지난 7월7일 런던 지하철연쇄폭발 테러에 대한 대응은 재빨리 이뤄졌다. 사건 직후 기차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어졌고 지하철이 끊겨 도시 교통이 마비됐지만 런던이 일상을 되찾기까지는 단 하루도 안 걸렸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산전수전 다 겪은 도시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공습으로 도시는 파괴됐고, IRA(북아일랜드공화국군) 테러로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도시다.

런던 테러는 예상된 충격이었다. 런던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여 어떠한 대형 재난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국민적 유대와 재난 대처의식이 이번 7·7 테러에서도 빛을 보였다.

미국의 9·11 테러는 예상하지 못한 참상이었다. 이후 4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나라 전체가 9·11 테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 본토는 한 번도 공격당한 적이 없는 안전한 땅이었다. 미국이 이 같은 테러에 대하여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숙고했다면, 십자군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들여다 볼 수 있었을 게고, 이라크 무력 침공에 따른 난마와 같이 얽힌 후유증을 앓지는 않았으리라.

특히 이번의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비롯한 미국 남부의 허리케인 피해에 대처하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보면, 다인종·다민족 국가인 미합중국(美合衆國)임에도 백인 주류 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근원적 문제점을 안고 있고, 중앙정부와 주정부간의 불협화음을 보게 되었다.

재난 속의 영·미·일·한인

세계 일등국이라는 미국의 부실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지난 9월 초 태풍 '나비'는 엄청난 위력이었다.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나 일본에 미쳐서는 더욱 위력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커진다고 한다.

그러나 무수한 지진과 태풍으로 단련되어서 그런지 일본은 가고시마에 하룻동안 약 1,300mm의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인명 피해는 20명 안팎이었다. 지난 3월20일 엄습한 진도7의 후쿠오카 강진에도 후쿠오카 시내의 콘크리트 건물은 단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거의 없었다.

무수한 재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엄격한 건축법 체계, 주도면밀한 재난방지체계,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와 인명구조 및 대피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하여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난방지체제를 갖춘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난을 한 번 당하면 인명 피해만 최소한 100~200명 수준일 정도로 재난방지체계는 완전히 저개발 후진국 수준이다. 피할 수 없는 재난에 의한 피해보다도 정부의 법과 제도의 잘못으로, 지방정부의 잘못으로, 공기업 잘못으로, 건설회사의 부실공사로... 등등, 한마디로 인재(人災)가 더욱 큰 게 문제다. 작년에 정부에서 소방방재청을 신설했지만 재난발생 비상통신체계는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이다. 총체적 디지털 시스템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국가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국민에 대한 임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의 보호'이다.

“환갑 앞두고 심접했다 아이가”

화공학 박사 고석명(14회) 미국 변호사 두 시험 합격

“환갑 앞두고 심접했다 아이가...”

미국 안에서 가장 힘들다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와 연방특허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고석명 동문(14회)이 각고 3년 반 만에 두 시험에 합격하고 토해낸 첫 소감이다.

고 동문은 2001년 봄, 한창 날리던 울산대 환경대 교수직(3년 봉직)을 내놓고 “미국에 가서 변호사 자격이나 따오겠다”며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위티어 로스쿨을 졸업, J.D(법무박사-변호사 시험 치를 자격 획득)를 땀으며



이어 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난 6월1일 선서식과 함께 취임했다.

재학시절 3학년7반이었던 고 동문은 서울대 공대 화공과를 졸업(64년)하고 미국에 유학, 화공학박사 학위를 얻었고 귀국한

후에는 연구위원·SK그룹 부사장·울산대 교수직 등을 역임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중 영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와 연방특허변호사 시험에 합격, 지난 6월1일 취임식을 치른 고석명 동문이 부인 김말숙씨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읽기와 쓰기가 가장 힘들었다는 고 동문은, 구두시험장에서 면접관이 “당신은 나이도 많은 데다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이다. 행운을 빈다”며 놀랐다고 한다.



부산지역 기독교 동문 신우회가 주관한 ‘윤형주가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와 얘기들’ 기동동문신우회 창립총회(14회)가 8월11일 오후 7시 부산시청 24층 동백홀에서 열렸다. (사진: 김남중)

기동동문신우회 ‘복음물결’

제24·26·31회 동기회 신우회 창립총회

‘윤형주가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 등 성향

부산지역 경남중·고 기독교 동문 신우회(이하 본부신우회) 각종 모임이 올해 하반기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동기회별 신우회 창립도 여기저기서 가시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부신우회(회장 이채연·16회)에 따르면, 가을정기모임인 세 번째 동문 초청의 밤 행사가 지난 9월5일 오후 6시30분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윤형주가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와 얘기’로 열렸다.

이를 위해 준비기도회가 지난 8월9일(인도 문상식 목사·36회), 16일(인도 이민희 목사·25

회), 23일(인도 이종승 목사·16회), 30일(인도 강순석 목사·40회) 등 네 차례 각 오후 7시 청십자신협 8층 회의실(부산동부경찰서 옆 일성콘도빌딩)에서 열렸다.

또 7월에는 정기임원회(본부·



제31회 기독교 동문 가족들이 8월11일 오후 7시 부산시청 24층 동백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 맨 앞쪽은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본부신우회 박지민 임동총무(21회).

기별 임원 확대 회의) 회의가 4일 오후 청십자신협 8층 회의실에서, 본부신우회 임원·이사회 임원 연석간담회가 8일 오후 6시 부산 사하구 괴정동 지하철 괴정역 근처 토담집에서 각각 열렸다.

특히 상반기에는 제24·26·31회 동기회 신우회가 창립되어 축하를 받았다. 제24회는 지난 6월3일 맛나농원에서, 제26회는 5월2일 도원에서 제31회는 8월11일 부산시청 24층 동백홀에서 각각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6월11일 저녁 가나안수양관에서 본부 주관 산상기도회(여름정기회)가 열렸다.

이채연 본부신우회장은 “제24·26·31회 신우회 창립을 축하하며, 새 생명 축복의 열매들이 주님의 가지에서 주렁주렁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정 사랑의 화정실 문화를 추구합니다. 막힘 없는 조질수의 인공식 연기 시스템

국립현대미술관

동장학장매장

제5회 공파골프대회

회보 광고로 홍보하면 사업번창과 역량결집 위한 ‘황금알’을 낳습니다.

각 동기회·직능회·국내외 지역회와 사업하는 용마들의 광고협찬은 알찬 회보를 만드는 활력소입니다. 성원 바랍니다.

한국 최고의 유아·초등·중등·영어학원

Little Campus 리틀캠퍼스

051-562-6666

제37회 동기회 임원 명단

제37회 동기회 임원 명단

제37회 동기회 임원 명단

도약! 도약! 전남지역동창회 전진대회 영-호남 용마 '화합' 한마당

본부서 회기 기증... 자긍심 고취·결속 촉진

영-호남 용마들이 전남 광양 땅에 모여 본부동창회가 기증한 경남중고전남지역동창회기를 휘날리며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결속을 과시했다.

지난 8월26일 오후 7시, 자연산 전어 어장으로 유명한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는 영-호남 동문 40여 명이 분출한 열정에 휩싸였다.

전남지역동창회(이하 경전회-慶全會)는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구례군 곡성군 등지 150여 동문·가족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박정근 회장(21회·동부계전 대표)이 주재한 이날 행사 제1부 기념식은 김병화 총무(35회)가 사회를 맡아 참석 동문 소개·회장 인사말·본부 기증회기 전달·격려사(이길상 6회 회장)·교가제창·축배·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안강태 본부 회장(11

회·대선조선 대표이사)은 경전회의 발전과 역내 동문·가족들의 사기를 드높여주기 위해 '경남중고전남지역동창회



전남지역동창회 주관 영-호남 동문 한마당 전진대회. 두 지역 동문들은 본부동창회가 기증한 '전남지역동창회기' (왼쪽 맨 위쪽)를 세워 놓고 축배를 들며 우정을 확인하고 있다.

기'를 제작. 김병수 사무국장(22회)을 통해 전달. 행사가 신선했던 감동 속에 묻히게 했다.

박정근 경전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 곳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영-호남 동문들이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마주 앉게 되니, '지척이 천리'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며 "오늘의 만남을 기폭제로, 영-호남 용마가족들은 한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동창회 발전을 위해 더욱 기여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전회 측에서 박 회장을 비롯해 '경전회의 역사'로 회자되고 있는 백연균 고문(11회·삼정사 대표)과 국회의원을 지낸 정철기 동문(13회) 등 30여 명, 본부측에서 김병수 사무국장 겸 총무부장과 황유명 부총무(29회), 하동에서

이길상(경야회 고문), 김 석(18회·군의회 전문위원) 김병수 동문(35회·김병수의원장), 남해에서 군수인 하영제 동문(27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채로운 것은 제11회동기회에서 백 고문을 비롯해 공상기(금호타이어 부속의원장) 안종인(전 중학교장·정년퇴임) 김재곤(도선사) 김성호 동문(인쇄업) 등 5명이 참석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리고 경전회의 '숨어있는 자금줄'로 통하는 백 고문이 이날도 100만 원을 쾌척, 행사를 뜻깊게 해주었다.

이 밖에 김수철(19회·하이테크 기술고문) 이충희(22회·부회장·동양제철화학 전무) 김상호(23회·우성산업 대표) 송희태(29회·포스코건설 소장) 박재백(30회·동양 대표) 김성철(31회·동양제철화학) 허규(32회·스포츠센터 소장) 예영찬(33회·광양제철소) 송호성(35회·포천축산 대표) 이명식(37회·광양제철소) 이상동(38회·광양제철소) 이상백 동문(39회·현대하이코스) 등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뒤풀이는 노래방의 노래자랑(2차)과 생맥주파티(3차)로 이어졌다.

"역량결집으로 조직 활성화"

해운대지역회 하계 임시총회

본부 해운대지역동창회는 지난 7월20일 오후 7시 부산 해운대구 우1동 그랜드호텔 뒤쪽 최부자숯불구이식당에서 하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과보고와 동문 소개에 이어 역내 미참여 동문의 적극적 발굴과 동창회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조직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이 명 회장(11회)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인석 총무(24회·법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명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동창회의 화합과 결속은 본부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만큼 역내 용마가족들의 역량 결집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본부회장을 역임한 박동열 고문(8회·해운대 성심병원장)이 건배 제의에 앞서 격려사를, 조대제 고문(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이 축사를 했다.

한편 안강태 본부회장(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은 김병수 사무국장 겸 총무부장(22회)을 통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10월23일 대야산에서 경부합동 산행

제21회재경회 주관으로

제21회재경동기회 주관 경부합동등산대회가 오는 10월23일 경북 문경시 근교 대야산에서 열린다.

올해로 열세 번째가 되는 이번 가족동반 행사는 서울 양재역 7번 출구 스포타임 앞에서 출발한다.

대야산은 서울의 북한산과 도봉산을 합쳐 놓은 듯한 비경을 자랑한다.

회비 : 홀로 2만 원·부부 3만 원.

회갑맞이 기념 중국 관광에 '별천지' 장가계 감동체험

제18회동기회 부부동반 16명 5박6일 견문 넓혀

제18회동기회는 올해 대부분의 동기생들이 회갑을 맞게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한 '회갑맞이 중국 장가계 여행'을 단행했다.

김사권 회장을 단장으로 한 여행단 16명(부인 8명 포함)은 지난 8월20일부터 25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중국 호남성 서북부에 있는 장가계(張家界) 일원에서 관광을 즐기며 견문을 넓혔다.

장가계는 수려한 봉우리와 동굴을 비롯해 원시상태의 아열대 경치와 생물생태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장가계에 가 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 할 수 있

겠는가?' 라고 할 정도로 경치가 빼어나다. 이곳의 무릉원은 최고 봉이 1,334m이다.

이들의 여행코스는 △첫날(20일)은 오전 8시45분 부산 출발~상해 도착~외탄야경·황포강유람~항주 1박 △둘째날(21일)은 서호 10경~영은사~육화담관광~상해~장가계 도착 △셋째날(22일)은 천자산 풍경구~원가계 풍경구~금편계곡 관광 △넷째날(23일)은 무릉원~보봉호수~황룡동굴 관광~상해 투숙 △다섯째날(24일)은 상해의 임시정부청사~홍구공원 등 관광 후 오후 5시5분 부산으로 출발.



회갑을 맞은 제18회 동문들이 부인들과 함께 중국 원가계 절경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무렵 비가 내려 모두들 비옷을 입고 몸을 감았다.

이우삼·손천익 우승 차지

제18회 상반기 바둑대회 결산

제18회동기회 상반기 바둑대회가 지난 7월11일 오후 2시 부산 진구 부전동 동기회관에서 열려 A조에서는 우승 이우삼·준우승 조양수 동문이, B조에서는 우승 손천익·준우승 양정만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대회는 30명이 참석해 열

전을 펼쳤는데, 특히 B조 준결승전에서 양정만 동문에게 1점차로 분패한 육병규 동문은 아차상을, 몸이 아파도 참고 선전한 고정대 동문은 감투상을 받았다. 바둑대회 협찬자는 다음과 같다.

△장수일=30만원 △박도형=10만원 △이우삼=고급 비타민제 2통 △고만숙=영양제 4통 △참가자=각 1만원 △뒷풀이행사 협찬=김종철 51만원·장연식 10만원·이우삼 5만원·오수명 5만원.

제 30회동기회 임원명단

고 문

서하수 유영진 유정동 윤성덕 하규양 최거훈 송영환 김병기 (무순)

회 장

황철민

부 회 장

수석부회장 김수동 최우철 정경목 최명엽 정영호 박동욱 장영조 권용택 김세일 박형구 서병환 이상필 정성원 정유철 허영재 오광태 이규하

신영주 최영규 강수철 이영준 김현태 변용환 신윤원 안중화 장훈상 황규태

이 사

구의본 권오봉 김경수 김기섭 김동준 김병섭 김창근 김유기 김재중 문장호 박기형 박병규 박성훈 박웅석 박인달 박정태 박희관 서민석 서복현 서재원 손보현 송철수 송한식 신광배 오경일 윤인태 이기환 이동대 이명건 이병구 이인길 이호준

임영호 장재호 정광덕 정용하 정재화 조재우 최석렬 박진수 권해철 이근우 최상호 정승진 마창수 김영호(1) 김영호(2)

감 사

서강태

총 무

노치훈 우홍제 왕순모

지역별 동기회

서울·경기지역 회장 김부중

총무 김진홍 양웅식 마산·창원지역 회장 임영수 총무 오경태 울산지역 회장 최진곤 총무 정진국 진주지역 총무 배종민

동호회

삼공포럼 회장 최거훈 삼공회(골프) 회장 최우철 총무 하준근 삼공산악회 회장 문장호 총무 배경조

삼공테니스회 회장 황철민 삼공바둑회 회장 박동욱 총무 최 욱 삼공 낚시회 회장 임영수

각지역 소모임

서부지역 회장 오광태 동래지역 회장 임영호 서면지역 회장 김현태 남구지역 회장 김동준 해운대지역 회장 오경일 북구지역 회장 신영주

폭서 탈출... 바다 · 산 · 계곡으로... 용마가족 수련회 러시

송정 해변 달군 '05여름캠프' 카니발

제16회 동기회 '05여름 캠프'가 지난 7월 29~31일 2박3일 일정으로 부산 송정해수욕장 민박촌을 베이스 캠프로 하여 펼쳐졌다.

올해 캠프는 부산에서 이명립 회장 등 24명, 서울에서 민신웅 회장 등 7명, 대구에서 2명(정 광채경일) 등 모두 33명이 참가했다. 일행은 첫날인 29일 저녁 전야제에서 우정과 열정을 분출시켰고 30일엔 해수욕과 특기자랑(바둑 장기 등) 경연을 벌였다. 마지막날인 31일 오전에는 해수욕을 즐긴 후 오찬을 겸한 해단식(강종국 등 13명 참석)을 치렀다.

이번 행사 협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산·서울동기회=각 50만원 △이명립 변용현 김무광 양화운=각 20만원 △김형석 안국정 이겸일 이종철 주낙근 홍

정길=각 10만원 △이무근=30만 원 △이길홍=10만 원 · 구급약 · 모기약 △정우광=5만 원 · 과일상자 △차상영=50만 원 △노대현=양주 2병 △박용일=혹돼지 바비큐 △박종봉=캔맥주 3박스 △윤세진=소주 3박스 △전종식=복분자술 등 3박스 △하희진=캔맥주 2박스 △홍용찬=노래방 · 카페 경비 부담.



"마음만은 아직도 청춘이야" 여름캠프 카니발에 참석한 제16회 동문·가족들이 장기자랑을 펼치고 있다. 강종국 사무국장(오른쪽)이 분위기를 달리기 위해 술잔을 높이 들고 "부라보"를 선창하고 있다.



경야회 동문·가족들이 '지리산자락나무집'(경남 하동생계사 근교)에서 하계단합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집 주인인 이길상 경야회 고문(6회)과 부인(뒷줄 가운데)도 합석을 했다.

지리산서 "기별야구 활성화 촉진" 결의

경야회는 지난 8월 20~21일 경남 하동의 쌍계사 근교 지리산자락통나무집(6회 이길상 회장 소유)에서 하계단합회를 개최했다.

이응규 회장(22회·전 부산서부터미널(주) 감사)이 주재한 이번 단합회는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기용 총무(27회)의 사

회로 진행. 기별야구대회 주관을 통한 활성화 방안과 모교 야구부 후원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집약했다. 본부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안강태 회장(11회·대선조선대표이사)을 대신해 김병수 사무국장 겸 총무부장(22회)과 황유명 부총무(29회)가 참석했다.

흑산도 흥어회 부산 상륙 "죽여주네"

제21회 동기회는 지난 7월 23~24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 가족동반 하계수련회를 열었다.

이재호 회장이 주재한 수련회에는 50명(부인 10명 포함)이 참석, 화합과 결속을 확인했다.

행사 첫날인 23일 오후 6시부터 열린 '만남의 광장' 제1부 기념식은 카테일파티와 참가기념 티셔츠 선물, 각자 소개가 있었다. 이어 직전 회장 오거돈(해양수산부 장관)·총무 조현영 동문

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제2부 여흥은 이성집 동문의 사회로 여수에서 직송한 흥어회를 안주로 우정 넘치는 술잔을 나누며 노래와 장기자랑을 펼쳤다. 피날레는 '친구여'의 합창으로 장식했다.

뒷날 24일은 오전 흥어회와 막걸리파티에 이어 수영교차로 부근 소문난 영양탕집에서 오찬을 나누고 오후 2시 해단했다. 특별협찬 동문은 다음과 같다.

△이재호 회장=영양탕 오찬 경비 전액 부담 △채경석=오복

식품 선물세트 21상자 △정의주 차량후방경보기 1점 포함 7점 △최수명=홍어 7kg △강수경=우산 10개.

오리 · 닭 30마리 순식간에 사라져

제23회 동기회는 지난 8월 20일 경남 김해시 장유계곡 초원의 집에서 가족동반 하계수련대회를 열었다.

박문회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40여 명(가족 포함)이 참석, 동문 청·백 대항 족구 시합·부인 대항 팔씨름·어린이 사생대회·노래·장기자랑 등으



제23회 동문·가족들이 김해 장유계곡 앞 초원의 집에서 하계수련대회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 숨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날 일행이 먹은 오리(구

이)는 20여 마리·닭(백숙)은 10마리였다고 한다.

합포만 용마가족들 부산투어

모교에서 기념품 기증 후 태종대 등 명승지 관광여행



부산 송도에서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마산·창원 용마가족들

마산·창원 지역 용마가족들이 '청운의 꿈'을 꽃 피웠던 모교를 방문하고 추억 잇든 부산의 명승지를 관광하면서 신선한 감동을 누렸다.

지난 8월 28일 마산·창원지역 동창회는 '05하계수련대회'를 부산원정행사로 치렀다. 여환부 회장(21회·대주건설 대표이사)이 이끈 부산투어단은 동문·가족(자녀 포함) 38명으로 구성됐다. 일행은 관광버스편으로 휴일인 이날 오전 맨 먼저 모교(경남고~경남중)를 방문했다. 정문에는

환영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교직원들에게 대형 시계를 선사했다.

경남고 교정을 둘러보던 가족들은 한결같이 "학교가 공원 속에 묻혀 있네요. 그래서 이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심정도 착하군요.(폭소)"하며 입을 모았다.

이어 본격적인 시내관광에 들어갔다. 옛날과 영 탄판인 송도에 이르자 "아, 별천지가 따로 없네..."하는 등 감탄 섞인 말들이 잇달아 터져나왔다.

일행은 이어 해안절경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태종대를 한 바퀴 돌고 세계적 관광명소로 떠오른 광안대교, 해수욕과 온천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해운대, 부산의 랜드마크인 오륙도를 관광했다.

차 안에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던 부산은 열라(어린이)장난치던 때였네", "부산은 국제해양관광도시라고 하던데,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네"하는 등 여기저기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새로운 추억을 한 아름씩 안은 일행은 귀가길에 김해 장유에 들러 폭포사우나에서 여독을 풀었다. 모두들 '여행은 그리움과 기대가 만나는 길목에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정들을 꽃 피워주는 한줄기 사랑 이슬'임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이번 행사에 협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이경재(13회)·제14회동기회·김재근(19회)·민형기(20회)·강경구(21회)·김용경(25회)·한원우(26회)=각 10만 원 △최성웅(14회)=5만원 △여환부(21회·회장)=100만 원 △김우홍(22회)=30만원 △조호제(21회)=20만원.



내년 홈커밍데이행사(졸업20주년 기념)를 앞둔 제40회 용마가족들이 역량결집예행연습을 겸한 수련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 홈커밍 성공 위해 가족 동반 예행연습

제40회 동기회는 내년 졸업 2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역량결집 수련대회를 열었다.

지난 6월 12일 경남 김해시 진례면 금호가든, 임태영 회장이 주재한 가족동반 수련회는 7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결속을 과시했다.

간단한 기념식이 치른 후 이과와 문과 대항 축구시합(전·후반 20분)이 펼쳐져 3-2로 이과가 승리했고, 이 시간에 어린이사생대회가 함께 열렸다. 이어 어린이 달리기·부인 대항 달리기·가족 릴레이 경주가 벌어졌다. 오찬은 갈비파티, 남녀노소

불문 '먼저 먹는 사람이 주인'이었다. 이 사이 행운상 추첨이 벌어졌는데, 대상은 추첨 바로 직전에 도착한 최성우 동문이 행운을 누렸다.

오후에는 과일파티에 이어 족구시합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오전의 축구시합에서 진 문과가 2-0으로 이과를 눌러 설욕했다. 저녁 무렵 부산대 신공원 근교 꽃마을로 이동한 일행은 국수와 막걸리잔치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김재성 동문(슈퍼마켓 운영)의 어린이들을 위한 과자류·화용품·스케치북·휴대용 선풍기 등 협찬을 비롯해 많은 동문들이 성품을 기증했다.

중국 명승지 · 백두산 관광 러시

제14회 경부 등산회 · 낙석회 등 부부동반으로

제14회동기회 경부 용마가족들이 중국~백두산 등반·관광을 잇달아 실시해 건문을 넓히는 기회를 쌓았다. 14K등산회를 비롯해 재경산악회, 낙석회 등의 동문·가족들은 "나이가 들수록 부부의 정이 돈독해짐을 새삼 느끼게 한 여행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14K등산회는 지난 8월21~25일 4박5일간 중국령 백두산(백운봉 천지) 일원을 등반했다. 이번 산행에는 김재도 등반대장을 비롯하여 부부동반 16명이 참가했다.

첫째 날 : 장춘을 거쳐 연길에 도착. 둘째 날 : 백두산 서파~금강대협곡~제자하~고산화원~왕지를 관광. 셋째 날 : 새벽 2시경 지프차로 해발 2100m에 도착. 1천2백여 개의 계단을 올라 능선에 닿아 장엄한 일출 광경에 눈시울을 적시고 애국가와 교가를 목청껏 불렀다. 천지를 감상한 후 A팀은 천지 외륜봉 중주, B팀은 백두산 북파~천지~장백폭포 등반. 넷째 날 : 용정으로 이동. 일송정~해란강 운동주 시비~대성중학교 등 관광. 마지막 날 : 귀국 순이었다.

△재경산악회는 지난 8월20~24일 4박5일간 부부동반 43명(등반대장 박 진)이 14K등산회와 비슷한 코스로 등반·관광을 하였다.

△낙석회(회장:김병철)는 8월25~30일 5박6일간 부부동반 17

명이 중국 관광에 나섰다. 8월25일 오후 부산을 출발한 일행은 북경을 거쳐 한밤중에 장각에 도착한 후 이틀간 장각~원각을 구경하고 장춘을 출발했다. 북경에서도 이틀간 만리장성~자금성~이화원 등을 관광하고



백두산 등반에 나선 14K등산회 동문·가족들이 장백폭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14회 산악회 용마 가족들이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귀국하였다. 백두산을 등반한 동문·가족들은 너무나도 즐거웠고 매년 이런 모임을 가진다면 부부의 정이 더욱 깊어지겠다고 입을 모아 자랑하였다.

한편 14K등산회는 같은 달 30일 부산 중구 동광동 소재 공원식당에서 서울의 박 진 등산대장과 함께 뒤풀이를 하며 백두산 후유증(?)을 달랬다고 한다.

우승 이상훈 · 최득호 쌍석회 월례대회 성황

쌍석회(제11회 바둑모임)는 지난 7월22일 오후 1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 대한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월례대회를 열었다. 쌍석회 바둑대회는 홀수달마다 열린다.

이 명 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에는 30여 명이 참석해 기량을 겨룬 끝에 A조에서는 우승 이상훈·준우승 이상명 동문이, B조에서는 우승 최득호·준우승 박용관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제22차 등반 내연산서 용마산악회 90여 명 참가

본부 용마산악회는 지난 9월11일 경북 포항시 근교 내연산(710m)에서 제22차 등반대회(올해 3차 정기산행)를 실시했다.

정준수 회장(15회)이 이끈 이날 등반은 동문·가족 90여 명이 참가했다. 일행은 산행기점인 보경사 매표소를 출발(10:30)~문수산~내연산 정상(12:30~14:00 중식)~은폭(15:00)~매표소 도착(16:30)으로 산행을 마무리했다.

장산에서 '폭서와의 전쟁' 일오산오회 제232차 산행

제15회 등산모임인 일오산오회는 지난 7월17일 해운대 신시가지를 품고 있는 장산에서 제232차 산행을 실시했다.

김황영 회장이 총괄하고 김정길 동문이 산행대장을 맡은 이날 등반에는 17명이 참석, 장산 폭포사 앞에서 출발해 정상을 밟았다. 장마의 뒤끝이라 후텁지근한 날씨였으나 낙오자 없이 하산했고 새벽집에서 단합회를 열었다.

노관택(4회) 경기의료원 파주병원 의사로



국내 이비인후학의 거목인 노관택 동문(4회·사진)은 올해 7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최근 진료현장에 복귀,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원로인 노 동문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서울대병원장·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기춘(12회)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



김기춘 동문(12회·국회의원·사진)은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에 취임했다.

3선 의원(경남 거제)인 김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고시(12회)에 합격한 후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대통령법률비서관·대구고검장·법무연수원장·검찰총장·법무부 장관·한국야구위원회 총재·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원경(22회) 행정자치부 2차관 영진



문원경 동문(22회·사진)은 최근 행정자치부 2차관에 발탁됐다.

공학박사와 경제학 박사인 문 동문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17회)에 합격, 경남 진해시장·통영군수·울산시 행정부시장·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행자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지방행정 본부장·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허범도(22회) 산업자원부 차관보 발탁



허범도 동문(22회·사진)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재임 중 최근 차관보로 발탁됐다.

부산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허 동문은 행정고시(17회)에 합격, 총리실 국무회의 담당관·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장·UNCTAD 이주담당관·부산-경기중기청장·중소기업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문창진(25회)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문창진 동문(25회·사진)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재임 중 정책홍보관리실장(1급)으로 영진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문 동문은 행정고시(22회)에 합격, 복지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투신한 이래 국립보건원 보건고시과 과장·보건복지부 공보관·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실장 등을 역임했다.

남인회(26회)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



남인회 동문(26회·사진)은 건설교통부 차관보 재임 중 최근 기반시설본부장으로 영진했다.

서울대와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한 남 동문은 기술고시(13회)에 합격,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교통부 도로국장·정책홍보관리실장·건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김기표(26회)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장에



김기표 동문(26회·사진)은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재임 중 최근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발탁됐다.

부산대 법대를 나온 김 동문은 행정고시(19회)에 합격,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법제관·법령보급과장·경제법제국장·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전문위원·법제기획관·행정법제 국장 등을 역임했다.

엄상현(29회) 교육부 BK21기획단장 발탁



엄상현 동문(29회·사진)은 교육인적자원부 BK21기획단장에 발탁됐다.

서울대 사범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한 엄 동문은 행정고시(28회) 합격 후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대학 행정지원과장·장관비서관·국제교육협력담당관·UNESCO 사무국 정책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제8회

崔載赫=(자택 이사)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96 신동아 파밀리에 A동 1204호. 031-757-7629

제10회

金喆熙=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현대아파트 114동 2103호. 051-264-5289

金炫喆=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6번지 동원듀크빌리지 107동 305호. 051-747-3881

朴載昊=경남 창원시 봉곡동 161-8번지. 055-238-3136

許泳伯=(사무실 이전)리즘시계(주).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329-7. 02-2661-4292~4

제11회

姜範中=5월1일 부산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장남 호열군 결혼. 051-242-8267 · 011-836-8267

金成圭=5월22일 모친 별세

玉日潤=(재미)7월9일 딸 결혼

曹楊鉉=7월16일 인천국제공항 옆 하얏트 리젠시호텔에서 장녀 선혜양 결혼. 02-2298-5744 · 010-4702-3833

제13회

姜英柱=9월10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전우회관웨딩홀에서 차녀 민정양 결혼. 011-261-2161

朴一龍=8월17일 모친 별세. 011-743-1771

어디서 무엇을

裴鐘華=5월22일 모친 별세. 011-719-9143

崔富雄=9월2일 경기 분당 할렐루야교회에서 장녀 소영양 결혼. 011-725-1235

崔永才=대우버스 부회장 겸 대우글로벌 대표이사.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188-9. 051-805-6166 · 011-9539-4003

제14회

金宗秀=연세대학교 원주의대 교수. "대한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 학회" 회장에 피선

裴雙鳳=9월2일 서울 노보텔 엠

버서더호텔에서 장남 성준군 결혼

徐名成=7월17일 모친 별세

愼秀範=7월23일 장모 별세

沈載完=7월14일 별세. 경남 함양 가족묘지에 안장

李喜一=7월28일 별세. 울산 옥동 공원묘지에 안장

제15회

徐正旭=(연락처 변경)010-6483-2180

尹實=7월17일 별세.

李相模=(재미)프리랜서 디자이너

李恩洙=6월17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 (Tel)001-998-71-71-30011

韓海洙=9월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차녀 은진양 결혼

제16회

金政夫=6월18일 장녀 명선양 결혼

金賢皓=동아대학 산부인과 과장. 9월3일 장남 홍준군 결혼

盧祥鉉=청십자의원 원장. 6월24일 부산문화회관에서 가족악곡 발표회 가짐. 051-784-4361

梁和胤=7월10일 부산 신세화백 화점장으로 취임

玉潤錫=8월23일 파리패션 개업. 051-634-4015

李孟立=동기회장. 동기회에 책꽂이 기증

李武根=한서정형외과원장. 7월15일 모친 별세. 051-643-6001

李邦昭=(자택 이사)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42 두산위브 아파트 1405호

(6면에 계속)

夏安居 끝내고 9월27일 이사회

재경 경팔회 활동재개

무더위로 하안거(夏安居)에 들어갔던 재경 경팔회는 9월을 맞아 이사회를 비롯해 활동을 재개했다. 이와 함께 각 클럽도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재경8회는 오는 27일 오후 12시30분 시내 천진동 흥진옥(02-732-2214)에서 이사회를 개최, 연말 총회 계획안을 심의하고 문집 발간 추진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골프 우승 김세곤 · 정중옥

골프모임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지난 1일 안성CC에서 제14차 월례회(15명

참석)를 개최했다. 이날 남자부는 우승 김세곤(92타 · -4) · 준우승 김영길 · 3위 김호석 · 니어리스트상 이양희 · 행운상 윤태영 동문, 여자부는 우승 정중옥씨(102타 · +9)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제14차 월례회는 오는 10월6일 같은 장소에서 여는데, 월례우승자(04.5~05.4)가 벌이는 왕중왕전도 함께 치른다.

바둑 우승 윤태영... 10월대국 27일

바둑모임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9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일기원에서 이 회장을 비롯해 신현주 윤태영 전영배 최대영 강성태 이창근 동문(도착순)이 9월 정례 대국을 벌인 끝에 우승 윤태

영 · 준우승 전영배 · 감투상 신현주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10월 대국은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안개비 속 텐트 치고 점심 먹어

산우회(회장 김영철)는 8월 불벌더위에도 매주 휴일마다 배낭을 매고 북한산 등에 올라 호연지기를 폈다.

지난 26일 11명이 북한산(하산 후 흑맥주 파티), 19일 19명이 관악산(김영학 동문이 수육과 실렁탕으로 점심 대접), 12일 10명이 안개비 자욱한 수락산(이희순 동문이 준비한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도시락 먹으니 운치 최고...), 5일 10명이 34도 짙은더위의 도봉산(하산 후 생맥주 파티) 각각 등정했다.

경열회 9월수업 열성

경열회(재경 제10회) 각 친목회는 지난 8월 무더위 극성으로 부진했던 수업을 만회하기 위해 9월 수업에 적극적이다.

분당배고 일제히 대오각성

테니스모임 정우회(회장 최형백)는 15일 평촌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10일 우면산에서 각각 노익장을 과시했다. 사니조아는 오는 25일 과천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삼림욕장에서 걷기대회를 연다. 또 산본화요회(회장 박철민)는 13일 오전 12시30분 산본역 근처 이랜드 맞은 편에 있는 순두부마을에서, 강북회(회장 강재환)는 6일 오후 12시30분 중앙극장 앞에 있는 평래옥에서 각각 가을맞이 술잔을 나눴다.

한편 골프모임 경록회(회장 이정배)는 22일 자유CC에서, 바둑모임 동수회(회장 김상태)는 24

일 회장 사무실에 모여 추석 이야기를 나누며 기량을 겨룬다.

분당도요회(회장 정상수)는 추석연휴 핑계로 모임을 유보했고, 일금회(회장 최장훈)는 23일 일산 주엽역 근처 마라도에서, 강

통더위 핑계로 수업을 빼먹어 창피(?)를 당했다.

변완수 퍼팅 6년 만에 첫 우승

경록회 8월 대회에서는 변완수 동문이 퍼팅 6년 만에 감격의 첫



재경 경열회 클럽 중 하나인 산본화요회의 동문들이 순두부마을에 모여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남회(회장 김해룡)는 27일 서초기왓집순두부에서 각각 정담을 나눌 계획이다.

경록회 등 3개 반만 8월수업

8월수업은 항상 모범(?)을 보이고 있는 강남회와 경록회, 산본화만 열심히 했다. 사니조아 · 동수회 · 일금회 · 분당회 · 정우회 · 강북회 등은 '쩍

우승을 차지해 동네방네가 싱글벙글이었다. 변 동문은 이날의 '영광'으로 신나게 한턱 썼고 핸디는 16으로 내려갔다.

이 회장을 비롯해 11명(3팀)이 열전을 벌인 이날 입상자는 우승 변완수 · 메달리스트 이승락 · 준우승 김창덕 · 3위 고무용 · 롱기스트 이정배 · 니어리스트 김상태 · 행운상 김연수 동문이다.

낙지집에서 12명(동기회관 조일량 실장 포함)이 모여 제155차 정례회를 열었다.

특히 지난 6월24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노상현(16회) 가곡 '초혼' 작곡 발표회에서 클라리넷 협연을 한 최 옥 동문과 <보름장터> 발행에 헌신하고 있는 정 총 동문(재경)의 노고를 박수로 치하했다. 화친회는 <보름장터> 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김경일 동기회장 금일봉 격려

기림회(회장 김종광)는 11일 오후 7시

죽마고우에서 부부동반(9명)으로, 삼팔회(회장 허두영)는 8일 오후 7시 장춘방에서 부부동반(14명)으로 각각 정례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김영일 동기회장과 김창구 총무가 참석, 금일봉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삼육회(회장 이승남)는 7일 오후 7시 울진가북이회집에서 14명(정창한 김승일 조일량 특별초대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일 동기회장은 금일봉을 쾌척했다.

'용마봉화대' 점화

남가주회, 각 동기회 대장위촉

미국 남가주지역동창회(회장 이서희 · 22회)는 집행부와 동문 간의 효율적인 관계 유지와 결속력 강화를 위해 각 동기회별 연락망인 '용마봉화대'를 구축,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같은 네트워크는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은 서로 나누어 덜어줌으로써 일체감을 조성하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각 동기회별 봉화 대장은 다음 발표와 같다.

회	봉화대장	회	봉화대장
1~5	한원규(4회)	22	차한열
6~8	박현호(7회)	23	정영치
9	김태준	24~25	송세현(24회)
10	류동웅	26	조재관
11	정상석	27	최대영
12	최광능	28	임창윤
13	강원중	29	전목환
14	김창휘	30~32	이민희(32회)
15	유복태	33	황희남
16	김경삼	34	방성연
17	명희공	35	박평길
18	강창호	36	조성우
19	안광호	37~41	조병철(38회)
20	김석일	42~	백성욱(42회)
21	천병규		

회보 Newsletter 3호 펴내

미국 남가주지역동창회

미국 남가주지역동창회는 최근 회보 'Newsletter' 제3호(발행인 이서희 · 22회, 편집인 이원익 · 27회)를 펴냈다. 신국판 20쪽으로 편집된 이 회보 표지 1~4쪽은 용마가족의 각종 행사 사진(컬러)으로 장식했다. (사진 표지)

내지 3쪽에는 개인 · 직능회 동 소식, 4~15쪽에는 동문글 발(△ '경고 창설과 교양교육' -한원규 · 4회 △ '늙은 늙은

세무가이드 9월호 발간

서민석(30회) 세무회계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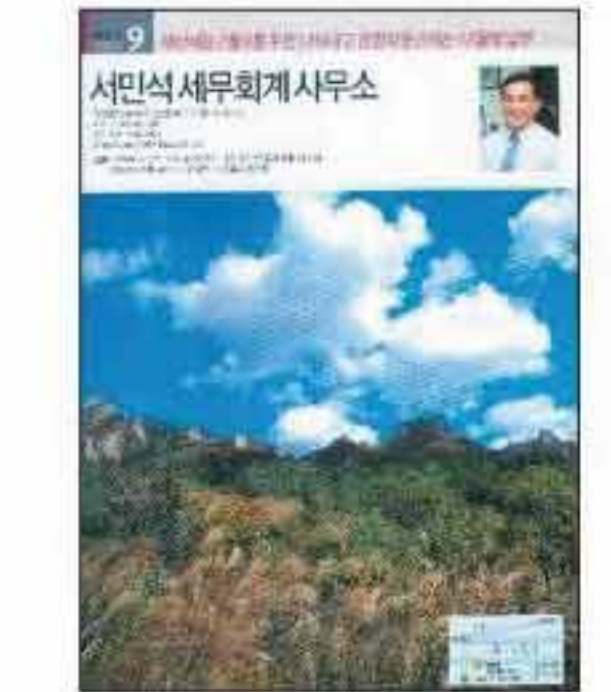
서민석 동문(30회)은 최근 세무관련 길라잡이 <세무일지> 9월호를 발간했다. (사진 표지) 본부 용마산악회 총무직을 맡고 있는 서 동문은 '서민석세무회계사무소' 대표로 있으면서 지면을 통해 갖가지 세무 이슈를 상담해주고 있다.

4×6배판 12쪽으로 엮어진 <세무일지> 9월호에는 △재산



꺼져'-김태준 · 9회 △ '앞에만 서면'-차한열 · 22회 △ '마운틴 볼디에서'-김만용 · 27회 △ '골프회를 이끌며'-조재관 · 26회 △ '춘계야유회를 갔다와서'-최대영 · 27회 △ '이민 첫걸음'-백성욱 · 42회)이 게재되어 있다.

16~18쪽에는 △공지사향 △용마봉화대 구축-각 동기회 연락망 △각 동기회 봉화대장 △웃자코너 (여자들의 속마음 · 경상도 사투리의 놀라운 압축효과) 등이 실려 있다.



세는 7·9월 두 번 나눠내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 △사업장 임차 시 확정일자 받아라(확정일자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시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 집중 단속 △4주택이상 보유자 212명 세무조사 △증여 경우 증거 남겨야 △상속세 절세 가이드 △부동산 취득 시 세금 종류 △주택 소유자의 상가 건물 소유 경우 구제 방법 등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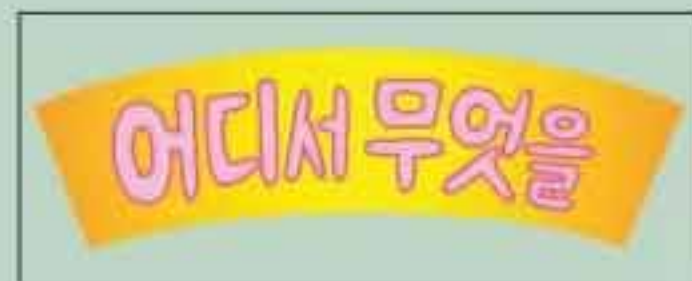
제16회

曹永洙=8월8일 별세
朱琪珉=동래교육구청 교육장. 8월31일 홍조 근정 훈장 수여받고 정년퇴임.

제18회

姜大圓=부산세관 외환조사과 과장. 공로 연수. 051-645-7500
姜永鎭=9월1일 남일중 교장으로 승진. 051-531-0509
金吉帝=5월21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대연회장에서 장녀 소영양 결혼
金思權=부산경찰청 보안과장. 공로 연수. 051-291-0898
金榮泰=9월3일 부산 국제신문사 4층에서 차남 민석군 결혼
金喆用=부산시 연제구청 총무

국장. 공로 연수. 051-743-6201
朴東午=9월1일 양덕여중 교장으로 승진. 051-341-1193
朴榮一=5월1일 부산 하모니웨딩홀 심퍼니홀에서 장남 상균군 결혼
송한승=4월16일 부산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장녀 민강양 결혼
신민섭=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 부산시 사무소장(부산시청 24층). 051-852-4017
吳壽明=6월5일 부산 금강예식장 크리스탈홀에서 장남 동석군 결혼
吳鍾祿=(재미) 2028 Empire Mine Circle Gold River, Ca. 95670. (Tel)916-852-8762
李鎭國=6월19일 부산 대원웨딩홀 다이아몬드홀에서 장녀 현



정양 결혼
하영일=3월1일 대대고등학교에서 부흥고등학교로 전근

제20회

김상권=9월1일 영도 청동초등학교 교감으로 전보. 051-414-9880
沈斗壽=대청SS이코노 사장. 9월1일 제일모직 아울렛으로 새 단장 개업. 051-466-8033
尹宇成=그린테니스 대표. 9월3일 서울 엠버서더 호텔에서 아들 선호군 결혼
任盛春=사동초등학교 교장. 9월

4일 크라운호텔에서 딸 혜연양 결혼. 011-9550-3113
千鉉周=7월25일 솔로몬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장 취임

제21회

姜榮徒=7월8일 장남 결혼. 051-581-3242 · 011-862-7938
權容孝=경남 기장군 기장읍장. 051-709-5110 · 017-856-8803
金富坤=소나팔롱 대표. 051-467-4035 · 017-873-6677
金英柱=개금교 교사. 부산시 남구 대연3동 대우그린아파트 201동 1811호. 051-952-5249
金貞柱=울산포커스 논설주간. 052-277-6270 · 016-573-1717
朴讓榮=6월15일 장녀 결혼. 051-204-9197 · 017-559-9198
安承遠=부산 북부세무서장에서

서울 금천세무서장으로 전보. 02-850-4201 · 011-219-7647
李丙熙=하남초등교 교감.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한양아파트 32동 1010호. 051-759-2414 · 018-413-2413
李在皓=변호사 · 동기회장. 6월 23일 본부 동창회 부회장에 선임. 051-506-7381 · 011-595-6242
鄭甲植=(재미)HONDA Building Maint. Co./G.M. Field Operation/San Francisco Airport/David K. Chong. (Tel)707-693-1727 · (Cell)650-773-1020
鄭吉永=은수공예전문점 마몬 개업. 051-627-7714
鄭翼株=건강의료기구 유통전문점 헬스키퍼 개업. 051-329-7894 · 010-8309-8308

(7면에 계속)

제35회 '왕중왕' 행가래

재경 주최 제37회 기별야구대회...제34회 준우승

제35회동기회가 대망의 우승기를 휘날리며 감격을 누렸다.

지난 6월19일 서울 우리은행도농구장에서 막을 내린 재경동창회 주최 제37회 기별대항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질치부심해온 제35회는 다크호스 제34회를 13-7(7회전)로 물리치고 대회 첫패권을 장악했다.

제35회는 제34회의 1회초 공격을 '중이호랑이'로 만든 여세를 몰아 1회 말공에서 3점을 먼저 올려 승기를 잡았다. 이어 2회에서는 대거 5점을, 4회에서도 3점을 추가해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제34회는 2~3회 각 1점·5회 3점·6~7회 각 1점을 올렸으나 초~중반 11점이라는 대량 실점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후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

1991년 우승 이후 14년 만에 재현하려던 '정상탈환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한편 앞서 열린 제24회-제31회의 3·4위전에서 제31회는 제24회의 기권으로 3위를 차지했다. 천신일 회장은(15회·세중 회



시상 처음으로 패권을 장악한 제35회 선수들이 우승기를 휘날리자 박수를 치며 감격을 나누고 있다. 3위를 한 왼쪽의 제31회 선수들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용 마 춘 추

늙은 늙은 꺼져

미국 남가주에서 띄운 에세이 김태준 (9회)

나는 연초 어느 증권 관계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40대 여섯 명, 50대 세 사람, 그리고 60대 말인 저 자신 등 모두 열 사람이었다.

첫 만남이 있던 날 아무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처음이니 쑥스러워 그러려니 생각했다. 다음 날 쉬는 시간에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옆 자리 여인에게 "올해 LA에 비가 너무 많이 오지요"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녀는 "글쎄요" 하고는 옆 자리의 젊은이와 정담을 나누는 게 아닌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강연과 토론이 계속되는 만남의 장인데 인사라도 나누며 지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다. 시간이 끝나 헤어질 때도 "내일 봅시다"하는 인사 한 마디 없이 각자 떠났다.

돌아오는 차 속에서 나는 그 젊은이들과의 냉혹한 관계에 몸서리치고 모멸감마저 느꼈

다. 바꾸어 생각해 봤다. 30년 전 내가 60대의 늙은이를 같은 장합에서 만났다면 "연로하신데 투자관계를 배우겠다니 대단하십니다"며 덕담을 던졌을 것이다. 내가 나이가 들어 젊은이에게 대접을 받으려는 노욕이 아닌가도 나 자신에게 질책해왔다. 하기가 나는 5척 구에 새카만 얼굴, 백발에 허름한 차림의 꼴불견임에 틀림없다.

나는 지난 연말의 동창 망년회를 연상한다. 접수부 후배들과 어색한 만남으로 시작했다.

회비를 내고 자리에 앉았지만 가까운 동문들은 보이지 않았다. A선배는 밤눈이 어두워 불참을 통고해 왔고, L동문은 스트로크를 만나 반신불수의 몸이고, 동기 O군은 외손녀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못 온다나.

자주 어울리던 S군은 불귀의 객이 된 지 벌써 4년, 5년 전만 해도 만나기만 하면 내 골프 핸디가 짜다느니, 기 만불을 잃었느니 하며 너스레를 떨던

그도 이제 말이 없다.

나는 짝 잃은 외기러기인가. 정담을 나눌 동기도 시비를 걸 선배도 없다. 회장단들은 여흥을 진행하느라 바쁘게 오갔지만 나는 두어 시간 앉아 있는 것이 지루했다. 망년의 인사를 나누는 등 마는 등 하며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늙은이.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마누라도 나를 피하고 딸들은 아버지 가 퇴 후 잔소리가 많아졌다며 자주 편진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빼 쓰자니 친구나 후배들에게 변변한 대접도 못한다. 세상 물정에 도가 통한 척 하지만 결국 옹고집만 남아 남의 말 안 듣고 양보에 인색하다.

회람 시대의 벽에서도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다'는 낙서가 있었다던가. 늙은이들이 물러가는 것은 순리이다. 또 그것이 발전하는 과정일 것이다. 식충이들은 꺼져버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너무 자조적인 발상일까. 젊은이들이여, 역지사지(易之思之)의 심정으로 노인들을 대해주십시오 애소해보는 심정이다.

어디서 무엇을

구 보수동1가 104-10번지 (3/2). 011-563-5353

제 25회

- 成昊出=부산 사하경찰서장으로 부임
- 宋晶珪=부산항도선사협회 회장. (자택 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32번지 현대베네시티 103동 3201호. 051-746-7201 · 011-9313-7201
- 吳楊得=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골프아카데미 주임교수. 011-

제21회

- 鄭採敦=부산 금정세무서장에서 경기 안산세무서장으로 전보. 031-412-3201 · 011-9926-5325
- 曹炳奎=7월29일 시립 부산문화회관 관장으로 전보. 051-607-6001. 011-582-1795
- 韓俊洙=6월27일 부친 별세. 019-508-8594
- 許永道=(자택 이사)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롯데캐슬스카이 101동 2304호. 051-803-3726 · 011-9310-3726
- 黃東奎=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 113동 901호. 051-704-3778 · 016-867-5018

제23회

- 金鐘培=7월19일 모친 별세

- 金柱贊=부산정보여자고등학교 교사. 018-586-3655
- 金鐵東=7월9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웨딩홀에서 딸 결혼. 017-557-6295
- 朴種鉉=협성김정(주) 이사. (자택 이사)경남 진해시 북부동 860번지. 055-546-5411 · (직장)051-463-6551 · 019-595-0466
- 辛祥熙=성광프라(주) 대표이사. 녹산으로 공장 이전. 011-9775-4170
- 吳世仁=부산시 동래구청 지역경제과장. 051-550-4470
- 李德一=(자택 이사)경남 김해시 삼정동 652-8번지 가야아파트3차 201호. 011-558-6683
- 李秋道=부산시 영도구청 문화공보과장. 011-9043-8381
- 崔寅表=(자택 이사)부산시 중

Book Park 동문 새책

<한국독립운동사>

윤진현 (7회) 편저

동아대 교수(정년퇴임)를 지낸 윤진현 동문(7회)은 최근 <한국독립운동사>를 펴냈다. 이 책 <한국독립운동사>의 편저자인 윤 동문은 머리말에서 "일제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을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온갖 수단 방법으로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을 해왔다. 이것은 분명히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 책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선조들의 애국심과 숭고한 독립정신을 재인식하고 이를 조명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제1장 독립정신과 사대주의, 제2장 개화의 서곡과 독립운동의 태동, 제3장 개화풍토와 독립사상, 제4장 개화 독립당과 갑신정변, 제5장 격동정국(동학란과 갑오경장), 제6장 열강의 각축과 '마관조약', 제7장 을사보호조약과 항일운동, 제8장 왕조의 붕괴, 제9장 민족의 쫓겨 '기미독립만세' 등으로 엮여 있다. 윤 동문은 중앙대 정의학과를 졸업했고 이 대학 대학원과 부산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후 미국 유니온대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근대정치사>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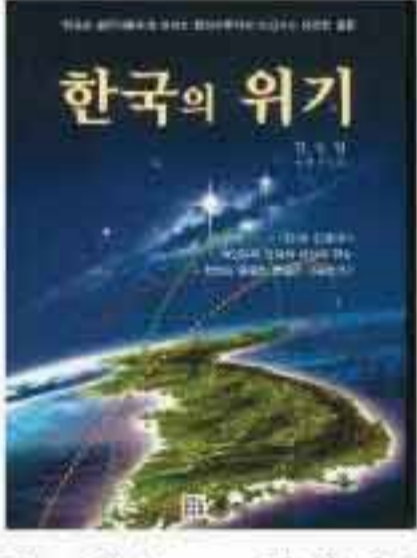


<한국의 위기>

김성일 (16회) 지음

한국정치학회·한국국민윤리학회 회원인 김성일 동문(16회·중앙대부교 교사)은 최근 <한국의 위기>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의 정치경제 교육 사회 윤리 등을 진단한 '김성일 논설수상집'이다. 필자의 화두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다. 이 책 <한국의 위기> 서문에서, 그는 "오늘날 일부 청소년들은 성적(性的) 순결을 잃고 타락하고 있으며 머리카락은 노란색 물감으로 도색되고 어설픈 서양 문명에 도취되어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절을 존중하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 국사와 윤리는 선택과목으로 전락되었

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정치적 파벌주의에 빠져 있으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애국심 교육과 인성 교육 그리고 국민정신 교육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위기>는 제1부 '이것이 인생이다', 제2부 '국민윤리교육의 이상과 현실', 제3부 '한반도 중립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을 담고 있다. 김 동문은 연세대 정의과와 이 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육군 정훈장교(대위)예편 후 (주)삼미사 본사 인사과장·한국 국민윤리학회 이사·북한연구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며 연세 국민윤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부리·304쪽·값 9,500원.

- 9306-5326
- 李相英=손해보험전문출판법인(주)인슈팍,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83 고촌빌딩 2층. 019-642-8641

제 28회

- 金承德=뉴질랜드에서 귀국. 051-624-7736
- 金利濤=(근무지 변경)경북 울진 국립수산물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어류연구센터. 054-782-5497
- 金鐘寅=마닐라 주재 아시아개발은행 근무. 7월19일 모친 별세. 경남 고성 선산 안장
- 徐明秀=8월4일 모친 별세. 011-9729-9751
- 尹태준=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장으로 영전

- 尹鐘健=GS칼텍스(구 LG 정유) 부산 강서지사장. 7월 26일 장인 별세. 019-519-5189
- 尹哲相=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이천광장교회 담임목사. 사회복지사.
- 李國熙=건국대 교수. 8월17일 부친 별세. 011-9915-3631
- 韓鍾佑=4월4일 국립경상대학병원장에 임명

제 29회

- 김재원=5월31일 부친 별세. 016-583-0059
- 金進暎=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부인이 웨딩숍 로코코웨딩 개업. 051-244-5142 · 011-9538-3020
- 金泰敬=중국 소흥에서 TKINTL 운영. (Tel)86-575-5137-460

증권업협심의회 제05-476호(2005. 8. 19)

지점직통전화 : 1588-2111
www.cjcyber.com



자산관리도 CJ가 하면 다릅니다

CJ투자증권 전문가들의 탁월한 종합자산관리-
한 번을 맡겨도, 하루를 맡겨도 자산관리에 남다른 믿음이 갑니다

- 든든한 자산관리** 탄탄한 재무구조와 엄격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투신업의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흔들림 없는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뛰어난 운용능력** 시시각각 급변하는 금융 시장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 앞선 금융정보** 차별화된 금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남보다 한 발 앞선 자산증식을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자산, CJ로 더 크게  투자증권

CJ투자증권 대표이사 김 홍 창 (27회)